

수도권매립지관리공, 폐기물 분야 등 환경·에너지 사업 두각

환경과학원 숙련도시험 '만족' 판정
특성화대학원 사업... 전문인력 양성
송병익 사장 "기술경쟁력 강화 노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질·폐기물 분야뿐 아니라 자원순환 등에서 정부의 인정을 받는 등 '환경+에너지' 사업 전반에서 고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수질·폐기물 숙련도시험에서 최근 심사항목 전반에 걸쳐 적합 판정을 획득했고, 폐자원 에너지화·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공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한 '2026 수질·폐기물 분야 숙련도시험'에서 전 항목 '만족' 판정을 받았다. 또 기관평가에서 '적합'을 기록했다.

이 숙련도시험에서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분석능력 및 신뢰성 검증이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수질 분야와 폐기물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경과학원의 평가에서 '만족' 평가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4일 '2026년 폐자원에너지 특성화대학원 포럼'을 개최했다.

받은 항목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총유기탄소(TOC) 등 수질 분야 13개 전 항목과 카드뮴, 납, 구리, 크롬 등 폐기물 분야 6개 전 항목이다.

공사는 폐기물 매립시설과 침출수처리시설 등 주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해 왔다. 침출수·폐기물·악취 등 환경 항목에

대한 시험·분석 업무도 자체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반입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며 과학적 환경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환경과학원 주관 악취 분야 숙련도시험에도 참여해, 환경분석 전 분야의 품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

는 계획이다.

공사는 자원순환 부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14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에서 '2026년 폐자원에너지 특성화대학원 포럼'을 개최했다.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전담기관으로, 2024년부터 폐자원에너지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운영해 왔다. 참여대학 연구지원과 현장 중심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폐자원 에너지화 및 자원순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기존 수행책임자 간담회를 확대해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다. 특성화대학원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산학연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에는 특성화대학원 교수·학생과 참여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6개 참여대학의 연구개발 현황과 주요 성과 발표 및 산학협력·인재양성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에서

▲기술개발 ▲산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이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같은 날 '202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대회' 특별 분과 토론회도 열렸다. 패널 토의 참가자들은, 수도권 광역민관협력체계 기반으로 '전처리-물질회수-에너지회수'로 이어지는 자원순환 중심의 '공공주도 복합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병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폐자원 에너지화 분야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로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aT, 내부통제 등 정부 평가 최고등급 이어져

행안부 공공데이터 운영 최고등급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최상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내부통제 체계·조직투명성 제고 노력이 올해 감사원 평가에서 최고등급 획득으로 이어졌다.

공사는 감사원이 실시한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최상위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aT 내 감사실은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활동과 철저한 사후관리, 엄정 처분을 통해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 적극행정 지원 및 사전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을 기울였다.

감사원의 해당 심사평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효율적인 국가감사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 전경.

계 확립 및 내부통제 내실화에 목적을 둔다. 매년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관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비롯해,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대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A부터 D까지의 등급을 부여한다.

전종화 aT 상임감사는 "이번 A등급 달

성은 감사 전문성 강화와 내부통제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T는 앞서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서는 6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중점데이터 적극 개방 ▲민관협력을 통한 데이터 서비스 개발 확대 ▲12개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품질인증 '우수' 달성 등 고품질 데이터 개방과 민간활용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았다.

aT는 해당 평가에서 97.04점을 받았다. 이는 전체 기관 평균점수 67.6점을 훌쩍 넘는 수치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은 92.5점으로 집계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갯생 인턴십' 참가자 모집

미래농업에 대한 현장체험 기회가 청년들에게 주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푸드테크 등 유망분야 기업의 직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인턴십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이른바 '갯생 인턴십'으로, 신청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다. 청년인턴 24명을 선발한다.

갯생 인턴십은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업·농촌 가치 확산 캠페인(가치갯생)과 연계해 마련됐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직무체험 및 농촌 생활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층이다. 신청은 가치갯생 캠페인의 공식누리집에서 6월24일까지 가능하다.

서류와 온라인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인원은 7월13일부터 7월31일까지 기업별로 마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수부 "유조선 1척 호르무즈 통과 허가"

이란, 1척에 한해 통항가능 입장 밝혀

페르시아만 일대에 정박 중이던 한국국적의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허가를 받았다.

20일 오후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8일 저녁(한국시간) 해당 선박 1척에 한해 호르무즈 통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한국 공관을 통해 밝혀 왔다.

이에 이 내용을 정부로부터 통보 받은 선사가, 내부 협의를 거쳐 통항 개시를 결정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이 선박은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 카타르 인근 해역에서 운항을 재개했다. 해수부는 "이란이 제시한 통항로를 따라 20일 중 오만만을 통과할 예정"이라며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과 조율하에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유조선이 "한국

해운사HMM의 유니버설위너호로, 기착지는 울산"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유니버설위너호는 쿠웨이트산 원유를 싣고 있다"며 "20일(현지시간) 오전 이란 라라크섬 남쪽 이란이 승인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 항로에 진입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같은 날 중국국적의 대형 유조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유조선은 오션탈리호와 위안구이양호이다. 오션탈리호에는 카타르 및 이라크산 원유가 선적돼 있다. 목적지는 중국 취안저우항이다. 오션탈리호의 경우엔 위치 정보 송출이 끊겼다.

이 같은 외신보도 직후,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달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피격된 나무호 역시 해운사HMM 소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자동차 수출·생산 '주춤'... 내수판매 '반등'

산업부 4월 자동차산업 동향 발표

올해 4월 국내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부품 공급망 차질과 신차 출시를 앞둔 대기 수요 확대로 인해 수출과 생산에서 동시에 주춤한 성적을 거뒀다. 반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수출과 내수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부가 20일 발표한 '2026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한 61억 6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량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한 24.5만 대(24만 4990대)로 집계됐다.

동기간 자동차 생산량 역시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한 36.2만 대에 머물렀다. 한국지엠(+15.4%)과 KG모빌리티(+8.6%) 등이 신차 효과로 선전했으나,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가 생산(-16.2%), 내수(-19.9%), 수출(-1.9%) 모

두 꺾이는 '트리플 부진'을 겪으며 전체 수치를 끌어내렸다. 산업부는 공급망 이슈로 인한 생산차질은 6월부터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 수출 실적에서는 극명한 희비가 엇갈렸다. 북미(+2.4%)를 비롯해 신흥 시장인 중남미(+23.7%)와 오세아니아(+20.1%) 지역으로의 수출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견고한 국산차 수요를 증명했다. 반면, 중동 지역은 전년 동월 대비 38.7%나 수출이 급감했고, 아시아(-31.7%)와 EU(-13.1%) 등 기존 주요 시장에서도 부진했다.

수출·생산의 둔화 속에서도 국내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7% 소폭 증가한 15.2만 대를 기록하며 선전했다. 국산차 판매는 9.1% 감소했으나, 수입차 판매가 테슬라(+811.5%)와 중국 BYD(+272.6%) 등 전기차 브랜드를 중심으로 54.7% 급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민권익위 "음주측정 거부자 면허취소 적법"

"정당한 음주측정 절차 협조해야"

음주운전의심을 받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며 사실상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정심위)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와 부딪혀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리는 등 음주운전 징후를 보이자 음주 감지 후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음주 측정 불응을 이유로 A씨가 보유한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음주 측정 불응의 고의가 없었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위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불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점, 그리고 법령에서 음주 측정 불응 시 예외 없이 모든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 취소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라며 "운전자가 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